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7. No. 2, 2006

항불안제와 한약 - 驚悸·怔忡·恐證의 처방을 중심으로

이승기 · 최우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Antianxiety drug and Herb medicine

Lee Seung Gi. Choi Woo Jin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 Ji University, Wonju, Korea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scriptions and herbs about Keongke(驚悸), Cheongchung(怔忡) and fear affection(恐證) related to the anxiety disorder

Method : 9 main texts in oriental medicine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for this study. And then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nalyzed.

Result : 87 prescriptions and 123 herbs were described in 9 books. Especially Chusaanshinhwan(朱砂安神丸), Ginseng Radix(人蔘), Poria(茯神), and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were mainly used.

Conclusion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criptions and herbs frequently described about Keongke(驚悸), Cheongchung(怔忡) and fear affection(恐證) might have antianxiety effect.

Key Words : anxiety disorder, Chusaanshinhwan(朱砂安神丸), Ginseng Radix(人蔘), Poria(茯神),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 투고일: 7/3, 수정일: 7/10, 채택일: 7/11
교신저자 : 이승기,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 033-741-9268, Fax : 033-732-2124, E-mail : kesk@sangji.ac.kr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Ⅰ. 緖 論

불안이란 생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으로 광범위하게 매우 불쾌한, 그리고 막연히 불안한 느낌으로, 관련된 신체증상과 행동증상을 동반한다[1].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여 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불안과 같은 정신적 증상을 오장을 비롯한 신체적 변화와 결부시켜 나타내었는데, 驚悸, 怔忡, 恐證 등이 불안에 대한 한의학의 대표적 표현으로 인정되고 있다[2,3,4].

그간 한의계의 불안에 대한 연구로는 권 등[4]이 불안과 驚悸, 怔忡 등 한의학적 증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고, 박 등[5]과 정 등[6]이 불안장애 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보고하였으며, 김 등[7]이 分心氣飮加味方의 항불안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보고한 바 있다. 그 밖에 한의계 외에서 한약을 이용한 연구로 천궁[8]과 천마[9]의 항불안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불안장애 중 범불안장애의 1년 유병율이 3-8%로 알려져 있고, 공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5-5%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1]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불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의계에서 불안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연구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료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임상적 보고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불안의 한의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驚悸, 怔忡과 恐證에 쓰인 처방을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쓰인 처방 및 약재들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Ⅱ. 方 法

연구대상 의서로 醫學入門[10], 醫學正傳[11], 醫門寶鑑[12], 醫宗必讀[13], 醫學心悟[14], 萬病回春[15], 丹溪心法[16], 景岳全書[17], 東醫寶鑑[18]의 9종을 선택하였다. 驚悸, 怔忡, 恐證을 언급한 의서는 매우 많으나 모든 의서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한의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 9종의 의서로 한정하였다. 이들 의서들은 모두 驚悸, 怔忡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다양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중 東醫寶鑑은 다른 의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폭넓고 임상에서 한국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서적이므로 포함시켰다.

상기 의서를 대상으로 하여 驚悸·怔忡·恐證에 수록된 方劑를 모두 선택하여 처방내용을 분석하고 많이 쓰인 처방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처방의 기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이름이 같은 처방이라도 내용이 전혀 상이할 경우는 다른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安神丸, 溫膽湯, 平補鎭心丹이 그러하였다. 둘째, 同名 처방에서 의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같을 경우는 처방내용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동일내용이 많이 수록된 의서를 따랐다. 예를 들어 朱砂安神丸은 醫學心悟와 다른 5개 의서의 처방용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경우 5개 의서의 처방내용을 따랐다. 셋째, 의서별로 대등하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따랐으며 養心湯이 그러하였다.

개별 본초의 경우 처방에 인용된 횟수와 君藥으로 쓰인 횟수를 조사하였다. 君藥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처방 내에서 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한정하였다.

Ⅲ. 結 果

조사결과 9개 의서에서 驚悸·怔忡·恐證에 사용된 처방의 수는 모두 87개였고, 가장 많이 인용된 처방은 朱砂安神丸으로 6개 의서에서 사용되었으며, 加味四七湯, 茯苓飮子가 5개, 養心湯, 朱雀丸은 4개의 의서에서 사용되었고, 3개 의서에서 인용된 처방으로는 加味定志丸, 定志丸, 歸脾湯, 四物安神湯, 益榮湯, 溫膽湯이 있었다. 그중 溫膽湯은 4개 의서에서 기재되었으나 萬病回春의 처방 내용이 다른 3개 의서와 상이하여 다른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2개 의서에서 인용된 처방은 加味溫膽湯 등 모두 10개였다. (표1-1, 표1-2, 표1-3, 표1-4, 표1-5)

한편 87개 처방에서 123개의 本草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인삼이 87개 처방 중 5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뒤로 감초 44회, 복신, 당귀 41회, 원지 39회, 백복령 36회, 산조인 35회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개별 본초 중 君藥으로 사용된 빈도는 복신 22회, 인삼, 당귀 21회, 복령 17회, 숙지황 16회, 산조인 14회의 순이었다. (표2)

Ⅳ. 考 察

불안은 정상적으로 인생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이를 통해 좀 더 각성하거나 예민해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문제해결에 오히려 장해를 줄 때 이를 병적 불안이라 한다[1]. 불안은 대부분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DSM-Ⅳ[19]에서는 불안이 주증상인 불안장애를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불안을 한의학에서 직접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지 않는 한의학의 心身一如的 특성에 기인한 듯하다. 정신기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장에 배속하기 때문에 정신증상이 신체증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안과 같은 정신증상을 단독으로 표기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불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증후로 인정되는 것은 驚悸와 怔忡, 恐證이라 할 수 있다[2,3,4]. 본 연구에서 선택한 9종의 한의학 문헌에서도 驚悸·怔忡과 恐證의 증상에서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悸 築築然跳動不能自安, 恐 心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13], "驚悸者 忽然驚惕而不安也, 怔忡者 心中惕惕然而跳動也"[15], "驚悸者, 驀然跳躍驚動欲厥之狀也. 怔忡者, 心胸築築躁動不寧之狀也"[12], "夫所謂怔忡者, 心中惕惕然動搖而不得安靜, 無時而作者是也. 驚悸者, 漠然而躁驚動而有欲厥之狀, 有時而作者是也"[11] 등이 그것이다.

한의학에서 정신기능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神이며, 神의 기능상 이상이 있을 경우 불안과 같은 각종 정신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神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心이다. 驚悸와 怔忡은 놀람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心의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 증후들이다. 恐은 腎의 志이나 心을 상하게 할 수 있고, 神이 상하면 역시 恐하므로[20] 恐情 역시 불안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2].

본 연구 결과 9개 의서에서 驚悸·怔忡·恐證에 사용된 처방의 수는 모두 87개였고, 가장 많이 인용된 처방은 朱砂安神丸으로 6개 의서에서 사용되었다. 加味四七湯, 茯苓飮子가 5개 의서에서 사용되었으며, 뒤이어 養心湯, 朱雀丸이 4개 의서에서, 溫膽湯, 加味定志丸, 定志丸,

歸脾湯, 四物安神湯, 益榮湯이 3개 의서에서 인용되었다.(표 1)

朱砂安神丸은 血虛心煩을 治하고 除熱安神시키는 처방으로[12,16] 血虛火盛하여 驚悸 怔忡이 나타난 이에게 고려되는 처방이다. 여러 의서들이 선대 대가의 견해를 따라 인용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9개 의서 중 6개 의서에서 등장한다는 점은 朱砂安神丸의 효능이 뛰어났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驚悸 怔忡의 원인으로 血虛火盛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加味四七湯은 心氣鬱滯로 인한 驚悸증상을 治하고 豁痰散驚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12], 茯苓飮子는 痰飮이 心胃에 있어 悸動할 때 쓰는 처방[13]이다. 痰飮을 치료하는 두 방제가 5개 의서에서 소개되었다는 것은 驚悸, 怔忡의 원인으로 痰飮이 중요시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朱雀丸은 心神不定 火不下降하여 나타난 驚悸怔忡에 滋陰養火 全心氣시키기 위해 쓰이는 처방이며[10,12], 養心湯은 憂愁思慮로 傷心하여 나타난 驚悸不寧에 쓰이는 처방이고[16], 四物安神湯은 心中無血 怔忡跳動할 경우에 쓰는 처방이다[12].

溫膽湯은 景岳全書, 醫宗必讀, 醫學正傳의 내용과 萬病回春의 처방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3개 의서는 널리 알려진 대로 心膽虛怯 觸事易驚 氣鬱生涎할 때[13] 쓰이는 처방이고, 萬病回春의 처방은 痰火로 驚惕不眠할 때 쓰이는 처방이었다[15]. 한편 溫膽湯의 변용처방인 加味溫膽湯과 十味溫膽湯도 각각 2개 의서에서 사용되었는데, 加味溫膽湯은 醫宗必讀 등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十味溫膽湯은 夢遺驚悸할 때 쓰이는 처방이다[12]. 이처럼 溫膽湯류가 많이 사용된 것은 心膽虛怯이 불안의 주요한 병리기전이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한편 개별 본초의 조사에서는, 87개 처방에서 人蔘이 5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뒤로 甘草 44회, 茯神, 當歸 41회, 遠志 39회, 白茯苓 36회, 酸棗仁 35회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개별 본초 중 君藥으로 사용된 빈도는 茯神 22회, 人蔘, 當歸 21회, 茯苓 17회, 熟地黃 16회, 酸棗仁 14회의 순이었다. (표2)

처방에 단순 포함된 횟수와 君藥으로 사용된 횟수를 같이 감안하면 인삼과 복신, 당귀, 원지, 백복령, 감초 등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인삼의 경우는 安神益智, 大補元氣, 生津止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1,22]. 또한 인삼은 gensenoside의 종류에 따라 중추신경계에 흥분과 억제라는 다양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癲狂의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22,23]. 백복신은 한의계에서 寧心安神시키는 대표적 약재 중의 하나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君藥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 복령까지 합한다면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백복신의 주요 성분인 β-pachyman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보혈지제인 當歸는 驚悸 怔忡의 주요 원인인 血虛를 치료하기 위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21,22].

감초는 인삼 다음으로 많이 쓰였으나 君藥으로 쓰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감초의 주요 약성인 다른 약들과 조화시키는 효능 때문인 듯하다. 또한 補脾益氣 養陰血하는 효능이 驚悸怔忡의 주요 원인인 心血을 補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원지 또한 寧心安神, 祛痰의 효능이 있으며 원지피의 추출물이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처방의 조사결과, 주로 慈陰 養血 安神시키는 처방과 心氣의 鬱滯로 생긴 痰飮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여러 의서에서 공통으로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비해 개별 약물의 조사결과에서는 주로 氣血을 補하면서 安神시키는 약물들이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淸熱藥 중에서는 生地黃과 黃連이 비교적 많이 쓰인 편이었

으나 인삼, 복신 등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

불안과 관련된 신경정신과 환자는 매우 많지만, 한의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 한의계의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여 그 효과를 보고[5,6]하거나 처방을 동물실험에 응용하는 쪽[7]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대 한의학 의서[2,3]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변증을 하고 이에 따른 치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의학적 시각으로 지극히 타당할 것이나 대부분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이나 증상을 뇌의 생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작용으로 밝혀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통 한의학의 시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일면으로 한약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약을 통한 불안 관련 연구는 ①한약의 항불안 효과 조사, ②한약의 성분을 이용한 항불안제 가능성 조사, ③항불안제 양약의 대체 혹은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한약의 역할, ④양약과 한약의 약물상호작용 조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한약의 항불안 효과에 대한 연구는 分心氣飮[7]과 腎氣丸, 補中益氣湯, 四物湯[24]과 같은 복합처방을 이용한 연구와 천궁[8], 천마[9]의 개별 약물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부 항불안 효능이 보고되었다. 傷寒論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의 경우 柴胡加龍骨牡蠣湯, 加味逍遙散, 歸脾湯, 黃連解毒湯 등이 항불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27]. 이러한 처방 혹은 임상에서 효과가 높은 처방이나 의서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을 위주로 하여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약의 성분을 이용한 항불안제 가능성 조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수많은 한약의 성분 중 하나의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한의사들에게 이러한 시도는 한의학적이지 않다는 생소함을 유발하며, 게다가 실험적 방법도 대다수의 한의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약 혹은 생약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엄청난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한의학은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안을 비롯한 특정 증상에 많이 쓰인 처방이나 개별 약물로 범위를 좁혀 간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항불안제 양약의 대체 혹은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한약의 역할은 현재 임상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대표적 항불안제인 Benzodiazepine계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항불안 작용을 나타내고 부작용으로 졸림, 운동실조, 두통, 언어장애, 구갈, 변비,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28], 이러한 증상들은 한의학적으로 血虛의 관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넷째, 양약과 한약의 약물상호작용 조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Horowitz는 Herb에 대한 지식의 부족, Quality control의 결여, Botanicals의 사용에 대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잠재적 상호작용에 대한 의사의 지식 부족 때문에 Herb와 양약의 상호작용 조사가 어렵다고 하였다[29].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양약과 한약의 병용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불안관련 병증에 독성이 강한 약은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상호작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양방 정신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한약 선호도가 높으며[30], 임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사례이기에 연구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87개 처방이 과연 모두 불안증상에 쓰인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많이 인용된 처방들의 경

우 효능이 뛰어나서인지 단순한 재인용인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작은 출발점이 되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약을 이용한 불안병증의 치료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Ⅴ. 結 論

1. 9개 의서에서 驚悸·怔忡·恐證에 사용된 처방의 수는 모두 87개였고, 朱砂安神丸, 加味四七湯, 茯苓飮子, 養心湯, 朱雀丸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2. 87개 처방에서 123개의 本草가 사용되었으며, 인삼, 감초, 복신, 당귀, 원지, 백복령, 산조인 등이 처방에 많이 포함되었다.
3. 君藥으로는 복신, 인삼, 당귀, 복령, 숙지황, 산조인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參 考 文 獻

1.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9. p297, 300, 302, 321
2.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한방신경정신의학. 서울. 집문당. 2005. p114, 225-232
3. 황의완, 김지혁. 동의정신의학.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1987. pp602-605
4. 권종준, 김태헌, 강형원, 류영수. 불안 및 불안병증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5;16(1):159-170
5. 박귀영, 이상룡. 범불안장애의 임상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5;3(2):287-305
6. 정인철, 이상룡. 불안장애 환자 19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8;9(2):161-169
7. 김경욱, 김종우, 황의완, 김현택, 박순권, 김현주. 分心氣飮加味方이 흰쥐의 수면장애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0;11(2):53-62
8. 강지현, 이동웅, 하정희. 천궁의 GABA 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와의 상호작용. 생물치료정신의학. 1997;3(2):168-174
9. 김여환, 최형철, 손의동, 이광윤, 김원준, 박형배, 하정희. 천마의 항불안 효과. 생물치료정신의학. 1996;2(2):108-114
10. 李梴. 編註醫學入門 卷二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p372-373
11.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p274-276
12.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일중사.1991. pp169-171
13. 李中梓. 醫宗必讀. 서울.서원당.1976. pp370-374
14. 程國彭. 批增 醫學心悟. 서울. 一中社. pp208-209.
15.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226-229
16.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대성문화사. 1999. pp355-358
17.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정담. 1999. pp345-348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4. pp96-97
19. 이근후 외 역.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 서울. 하나의학사. 1995. p513, 514
20. 張介賓. 類經 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57
21. 이상인. 본초학. 서울. 학림사. 1986. p51, 59, 95, 101, 347
22.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1.

p422, 434, 222-223, 464, 379-380
23. 노경수, 김석현, 이승기, 최우진, 최승학, 최준호, 양병환. 정신병치료에 쓰이는 한약재. 정신건강연구. 2004;23:199-208.
24. 류종훈, 김민선, 황영선, 육창수. Elevated plus maze를 이용한 腎氣丸, 補中益氣湯 및 四物湯의 항불안 효과. 응용약물학회지. 2001;9:125-130
25. 조기호 외 역. 일본동양의학회 EBM특별위원회. 한방처방의 EBM. 서울. 고려의학사. 2004. p318
26. 조기호. 동서의학진료가이드북. 서울. 고려의학. 2001. p342
27. 변성희, 김상찬 역. 타니 타나토. 한방약의 약능과 약리. 서울. 전파과학사. 1999. pp141-152
28. 범진필. 임상약리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3. p190
29. Sala Horowitz. Combining suppliments and prescription drugs. alternative & complementary therapies. August 2000:177-183.
30. 원유준, 이강준, 김진세, 정인과, 곽동일. 정신과 환자의 한약복용실태에 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98;4(1):84-95.

처방	내용	수록된 의서
加減一飮煎	熟地黃 三五錢 生地黃 芍藥 麥門冬 各二錢 地骨皮 知母 各一錢 炙甘草 五七分	景岳全書
加味四君子湯	人蔘 白朮 茯苓 炙甘草 白扁豆 黃芪 各三錢	景岳全書
加味四七湯	半夏製 二錢, 赤茯苓, 厚朴 各一錢二分, 茯神, 紫蘇葉 八分, 遠志薑製, 炙甘草 各五分	東醫寶鑑, 醫宗必讀, 醫門寶鑑, 景岳全書, 丹溪心法
加味溫膽湯	香附子 二錢 四分 橘紅 一錢 二分 枳實 半夏 竹茹 各八分 人蔘 白茯苓 柴胡 麥門冬 桔梗 各六分 甘草 四分 薑三棗二	醫門寶鑑, 東醫寶鑑
加味定志丸	白茯苓 三兩 遠志 石菖蒲 各二兩 人蔘 一兩 琥珀 鬱金 各五錢	醫門寶鑑, 丹溪心法, 東醫寶鑑
薑朮湯	乾薑 白朮 赤茯苓 半夏麴 各五錢 桂皮 甘草 二錢半	景岳全書, 東醫寶鑑
開心散	人蔘 遠志 各二錢半 白茯笭 二兩 石菖蒲 一兩	景岳全書
驚悸養血湯(局方)	黃芩 茯神 半夏麵 川芎各五分 遠志(去心, 甘草水浸) 桂心 柏子仁 酸棗仁(炒) 五味子 人蔘 各二分半 甘草 四分	醫學正傳
控涎丹	甘遂 紫大戟 白芥子 各等分	醫宗必讀
金箔鎭心丸	膽星 一兩 朱砂 琥珀 天竺黃 五錢 牛黃 雄黃 珍珠 二錢 麝香	萬病回春
歸脾湯	白朮 茯神 黃芪(蜜炙) 龍眼肉 酸棗仁(炒) 各一錢 人蔘 木香各五分 甘草(炙) 二分半	醫門寶鑑, 景岳全書, 醫學正傳
歸神丹	朱砂 酸棗仁 白茯神 人蔘 當歸 各二兩 琥珀 遠志 龍腦 各一兩 金箔 銀箔 各二十片	景岳全書, 丹溪心法
蘭要濟衆方	白石英 朱砂 五分	景岳全書
大補元煎	熟地黃 少則用二三錢 多則用二三兩 人蔘 少則用一二錢 多則用一二兩 當歸 二三錢 山藥 二錢 枸杞子 二三錢 杜冲 二錢 山茱萸 一錢 炙甘草 一二錢	景岳全書
大營煎	熟地黃 三五七錢 當歸 二三錢 枸杞子 二錢 杜冲 二錢 牛膝 一錢半 炙甘草 一二錢 肉桂 一二錢	景岳全書
獨活湯	獨活 羌活 人蔘 前胡 細辛 半夏 沙參 甘草 五味子 白茯苓 酸棗仁各一兩	醫宗必讀
半夏麻黃丸	半夏 麻黃 各等分	醫宗必讀
補膽防風湯	防風一錢 人蔘七分 細辛 芍藥 甘草 茯神 獨活 前胡 各八分	醫宗必讀
茯苓散	茯苓一兩 遠志 防風 細辛 白朮 前胡 熟地黃 甘菊花 人蔘 桂心 各七錢半 枳殼 半兩	醫宗必讀
茯苓飮子	赤茯苓 熟半夏 白茯神 麥門冬 橘紅 各二錢 檳榔 沈香 甘草 一錢二	醫宗必讀, 醫門寶鑑, 景岳全書, 丹溪心法, 東醫寶鑑
秘傳酸棗仁湯	酸棗仁 遠志 黃芪 白茯苓 蓮子肉 當歸 茯神 各一錢 陳皮 炙甘草 各五分	景岳全書

표1-1 醫書에 기록된 관련 處方]

처방	내용	수록된 의서
四物安神湯	當歸 白芍藥 生地黃 熟地黃 人蔘 白朮 茯神 酸棗仁炒 黃連炒 梔子炒 麥門冬 竹茹 七分, 辰砂 五分	醫門寶鑑, 東醫寶鑑, 萬病回春
四物湯	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 各等分	丹溪心法
酸棗仁湯	酸棗仁 人蔘 各一錢 麥門冬 三錢 竹茹 二錢	景岳全書
蔘棗丸	人蔘 酸棗仁 各一兩 辰砂 五錢 乳香 二錢	醫學入門
葉氏育神散	赤石脂 白茯苓 甘草 遠志 乾薑 當歸 龍骨 紫苑茸 桂心 白茯神 防風 人蔘 赤芍藥 白朮 各一兩 薑三片 棗一枚	丹溪心法
逍遙飮	熟地黃 三五錢 當歸 二三錢 酸棗仁 二錢 芍藥 茯神 各錢半 炙甘草 一錢 陳皮 八分 遠志 三五分	景岳全書
心腎丸	牛膝 肉蓯蓉 熟地黃 各二兩 兎絲子 三兩 人蔘 黃芪 當歸 山藥 鹿茸 附子 茯神 五味子 龍骨 遠志 一兩	景岳全書
十味溫膽湯	半夏 枳實 陳皮 各二錢 白茯苓 錢半 人蔘 熟地黃 酸棗仁 遠志 五味子 一錢 炙甘草 五分	醫門寶鑑, 景岳全書
十四友丸	龍齒 二兩 熟地黃 白茯苓 白茯神 酸棗仁 人蔘 肉桂 阿膠珠 遠志 當歸 黃芪 栢子仁 磁石英 朱砂 各一兩	景岳全書
十全大補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熟地黃 當歸 白芍藥 川芎 黃芪 肉桂 各一錢	醫學心悟
安神補心湯	當歸 生地黃 茯神 黃芩 各一錢二分 麥門冬 二錢 白芍藥 白朮 各一錢 遠志 酸棗仁炒 各八錢 川芎 七分 玄參 五分 甘草 三分	東醫寶鑑
安神定志丸	茯苓 茯神 人蔘 遠志 各一兩 石菖蒲 龍齒 各五錢 蜜丸 辰砂爲衣	醫學心悟
安神鎭驚丸	麥門冬 貝母 二兩 生地黃 一兩半 朱砂 陳皮 當歸酒洗 白芍藥 一兩 遠志 川芎 白茯苓 七錢 酸棗仁炒 黃蓮 五錢 甘草 二錢	萬病回春
安神丸	人蔘 白茯苓 酸棗仁炒 當歸 生地黃 黃連並酒炒 陳皮 南星 各一兩 天竺黃五錢 雄黃 琥珀 眞珠 牛黃 各二錢	醫門寶鑑
安神丸(東垣)	黃連一錢五分(酒洗) 朱砂一錢 生地黃(酒洗) 當歸身(酒洗) 甘草(炙)各五分	醫學正傳
養心湯	白茯苓 茯神 當歸 生地黃 各一錢 黃芪 遠志 各八分 川芎 栢子仁 酸棗仁 各七分 半夏麴 六分 人蔘 五分 甘草 肉桂 三分 五味子 14粒	景岳全書, 丹溪心法, 東醫寶鑑, 醫學入門
養血安神湯	生地黃 茯神 一錢 白朮 酸棗仁炒 各七分 當歸身 川芎 白芍藥 陳皮 柏子仁 黃連酒炒 各五分 炙甘草 三分	東醫寶鑑, 萬病回春
養血淸火湯	酸棗仁炒 麥門冬 一兩 當歸 川芎 七分 白芍 生地黃 黃芩 梔子 八分 黃連 1錢 遠志 辰砂 五分 甘草 三分	萬病回春

표1-2 醫書에 기록된 관련 處方

처방	내용	수록된 의서
寧志膏	酸棗仁 人蔘 朱砂 半兩 乳香 一錢	景岳全書
寧志元	人蔘, 白茯苓, 茯神, 柏子仁, 琥珀, 當歸, 酸棗仁炒, 遠志酒浸 各五錢, 乳香, 朱砂, 石菖蒲 二錢半, 蜜丸	東醫寶鑑
寧志丸	人蔘 白茯苓 茯神 柏子仁 琥珀 當歸 酸棗仁 石菖蒲 遠志 各五錢 乳香 朱砂 各三錢	景岳全書
烏梅湯	烏梅肉 甘菊 各二錢 栢子仁 拘杞子 熟地黃 各一錢 白茯神 只角 防風 各七分 薑三片	醫門寶鑑
五痺湯	羌活 白朮 薑黃 防己 各二錢 甘草 各一錢 生薑	醫宗必讀
溫膽湯	半夏 枳實 竹茹 一兩 陳皮 一兩五錢 白茯苓 七錢 炙甘草 四錢	景岳全書, 醫宗必讀, 醫學正傳
溫膽湯	人蔘 白朮 茯神 當歸 生地黃 酸棗仁炒 麥門冬 半夏 枳實 黃連 竹茹 梔子 各等分 甘草 三分 辰砂 五分 烏梅 薑1 棗1	萬病回春
龍腦鷄蘇丸	麥門冬 四兩 甘草 一兩半 龍腦 薄荷 一斤 阿膠 人蔘 二兩 黃芪 一兩 生地黃 六兩 木通 銀柴胡 二兩	景岳全書
龍齒湯	官桂一兩半 半夏二兩 人蔘 白茯苓 枳殼 甘草 當歸 龍齒 桔梗 遠志 各一兩半 茯神 黃芪 各一兩 薑三片 棗一枚 粳米百粒	丹溪心法
右歸飮	熟地黃 二三錢 山藥 二錢 枸杞子 二錢 杜冲 二錢 炙甘草 一二錢 山茱萸 一錢 肉桂 一二錢 附子 一二三錢	景岳全書
牛黃淸心丸	山藥 七錢 甘草 五錢 人蔘 蒲黃 神麴 二錢半 犀角 二錢 大豆黃卷 肉桂 阿膠 一錢七分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防風 朱砂 白朮 一錢五分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牛黃 一錢三分 羚羊角 麝香 龍腦 一錢 石雄黃 八分 白蒺 乾薑 七分 金箔 大棗	丹溪心法
遠志飮子	遠志 茯神 人蔘 當歸 酸棗仁 黃芪 一兩 炙甘草 五分	景岳全書
遠志丸	遠志 石菖蒲 各五錢 茯神 茯苓 人蔘 龍齒 一兩	醫宗必讀, 景岳全書
理陰煎	熟地黃 三五七錢 或一二兩 當歸 二三錢 或五七錢 炙甘草 一二錢 乾薑 一二三錢 或加 肉桂 一二錢	景岳全書
二陰煎	生地黃 二三錢 麥門冬 二三錢 酸棗仁 二錢 玄蔘 白茯苓 木通 各一錢半 甘草 一錢 黃連 一二錢	景岳全書
二陳湯加味	半夏 陳皮 茯苓 甘草 枳實 麥門冬 竹茹 黃連 梔子 人蔘 白朮 當歸 辰砂 烏梅 竹瀝 各等分 生薑 大棗	萬病回春
益氣安神湯	茯神 二錢一分 當歸 一錢二分 麥門冬 酸棗仁炒 遠志 人蔘 黃芪 南星 淡竹葉 生地黃 各一錢 黃連 八分 小草 六分 薑1 棗1	萬病回春
益榮湯	黃芪 當歸 小草 酸棗仁 柏子仁 麥門冬 茯神 白芍藥 紫石英 各一兩, 木香, 人蔘, 甘草 各五錢 薑5棗2	東醫寶鑑, 丹溪心法, 景岳全書

표1-3 醫書에 기록된 관련 處方

처방	내용	수록된 의서
人物定志丸	遠志(去心) 石菖蒲 麥門冬(去心) 茯神(去皮) 白茯苓各一兩 白朮五錢 人蔘一兩五錢 牛黃二錢(另研)	景岳全書, 醫學正傳
人蔘散	人蔘 枳殼 五味子 桂心 甘菊花 茯神 山茱萸 枸杞子 各七錢半 柏子仁 一兩 熟地黃 二兩	醫宗必讀
人蔘養榮湯	白芍藥 當歸 人蔘 白朮 黃芪 防風 肉桂 陳皮 炙甘草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 茯苓 各七分 遠志 五分	景岳全書
人蔘丸	人蔘 茯苓 茯神 酸棗仁 遠志 益智仁 牡礪 各五錢 朱砂 二錢半	景岳全書
一方	朱砂 白芍藥 當歸身(酒浸) 側柏葉 各三錢 川芎 甘草 陳皮 各一錢 炒黃連 一錢五分	醫學正傳
靜神丹	當歸身酒洗 生乾地黃酒洗 遠志薑製 茯神 五錢 石菖蒲 黃連 二錢半 辰砂 二錢 牛黃 一錢 金箔 十五片	東醫寶鑑
定志丸	菖蒲 遠志各二兩 茯神 人蔘各三錢	醫宗必讀, 景岳全書, 醫學正傳
祖傳方	當歸 生地黃 遠志 茯神 各五錢 石菖蒲 黃連 各二錢五分 牛黃 一錢 辰砂 二錢 金箔 十五片	醫學正傳
左歸飮	熟地黃 二三錢 或加二三兩 山藥 二錢 枸杞子 二錢 茯苓 一錢半 山茱萸 一二錢 炙甘草 一錢	景岳全書
朱砂膏	甘草 七錢半 寒水石煨 石膏煨 各五錢 朱砂 硼砂 焰炒 各二錢半 龍腦一字 金箔 銀箔 各五片 麥門冬湯 調下	東醫寶鑑
硃砂消痰飮	牛膽南星 五錢 朱砂 二錢半 麝香 二分	景岳全書
朱砂安神丸	黃連 六錢 朱砂 五錢 甘草 生乾地黃酒洗 各三錢五分 當歸酒洗 二錢五分	醫門寶鑑, 景岳全書, 丹溪心法. 東醫寶鑑, 醫學心悟, 萬病回春
朱雀丸	白茯神 二兩 沈香 五錢	醫門寶鑑, 醫學正傳, 醫學入門, 東醫寶鑑
辰砂妙香散	山藥 白茯苓 茯神 黃芪 遠志薑製 各一兩 人蔘 桔梗 甘草 各五錢 朱砂 三錢 木香 二錢五分 麝香 一錢	醫門寶鑑, 東醫寶鑑
辰砂寧志丸	辰砂 二兩 石菖蒲 遠志 酸棗仁 乳香 當歸身 白茯苓 白茯神 各七錢 人蔘 五分	萬病回春
辰砂遠志丸	石菖蒲 遠志 人蔘 茯苓 辰砂 各半 川芎 山藥 鐵粉 麥門冬 細辛 天麻 半夏麴 南星 白附子各一兩	醫宗必讀
鎭心丹	辰砂 龍齒 猪心血 麥門冬 綠豆 燈心 白蜜	東醫寶鑑
鎭心丸	酸棗仁二錢半 車前子 白茯苓 麥門冬 五味子 茯神 肉桂各一兩二錢反 熟地黃 龍齒 天門冬 遠志 山藥各一兩半 人蔘 朱砂各半兩	醫宗必讀
眞珠丹	栢子仁 人蔘 酸棗仁 各一兩 熟地黃 當歸 各一兩半 犀角 茯神 沈香 龍齒 各半兩 眞珠母三錢(煉蜜.丸 辰砂爲衣 金錢薄荷湯下)	丹溪心法
珍珠母丸	珠母七錢五分 當歸 熟地黃各一兩半 人蔘 酸棗仁 柏子仁 犀角 茯苓各一兩 沈香 龍齒各五分	醫宗必讀

표1-4 醫書에 기록된 관련 處方

처방	내용	수록된 의서
天王補心丹	人蔘 五錢 當歸 麥門冬 五味子 天門冬 柏子仁 酸棗仁 各一兩 白茯苓 玄參 丹參 桔梗 遠志各五錢 生地黃 四兩 黃連 二兩	醫宗必讀, 景岳全書
淸心補血湯	人蔘 一錢二分 當歸 白芍炒 茯神 酸棗仁炒 麥門冬 各一錢 川芎 生地黃 陳皮 梔子炒 甘草炙 各五分 五味子 十五粒	醫門寶鑑, 東醫寶鑑
七福飮	人蔘 熟地黃 當歸 二三錢 白朮 一錢半 炙甘草 一錢 酸棗仁 二錢 遠志 三五分	景岳全書
八味丸	熟地黃 八錢 山茱萸 山藥 四錢 牧丹皮 澤瀉 茯苓 三錢 肉桂 附子 一錢	醫學心悟
平補鎭心丹	龍骨 二兩五錢 遠志 山藥 天門冬 熟地黃各一兩五錢 白茯苓 白茯神 五味子 車前子 肉桂 麥門冬 各一兩二錢	醫門寶鑑
平補鎭心丹	人蔘 龍齒 各二兩五錢 白茯苓 茯神 麥門冬 五味子 一兩二錢半 車前子 遠志 天門冬 山藥 熟地黃 一兩半 朱砂 兩半 酸棗仁 三錢	景岳全書
寒水石散	寒水石 滑石各一兩 生甘草二錢半	醫宗必讀
琥珀養心丹	琥珀 二錢 龍齒 一兩 遠志 石菖蒲 茯神 人蔘 酸棗仁 各五錢 生地黃 當歸 各七錢 黃連 三錢 柏子仁 五錢 硃砂 三錢 牛黃 一錢	醫宗必讀
琥珀定志丸	南星 半斤 人乳 人蔘 白茯苓 茯神 各三兩 辰砂 石菖蒲 遠志 各二兩 琥珀 一兩	萬病回春
黃連安神丸	硃砂 一錢 黃連 錢半 甘草 五分 生地黃 一錢 當歸 一錢	醫宗必讀

표1-5 醫書에 기록된 관련 處方

本草	포함된 횟수	君藥으로 쓰인 횟수
人蔘	51	21
甘草	44	7
當歸	41	21
茯神	41	22
遠志	39	12
茯苓	36	17
酸棗仁	35	14
朱砂	33	7
熟地黃	24	16
麥門冬	24	12
生地黃	20	9
白朮	16	10
半夏	14	11
陳皮	11	5
黃連	8	7

표2. 87개 처방에 쓰인 주요 本草